


2007. 2. 28.

국가청렴위원회 기업윤리센터

기업윤리 브리프스
Business Ethics Briefs

< 차례 >

- 01 자발적 이니셔티브의 과제와 전망**
- 06 구조적 변동 -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투자자 신화**
- 11 윤리적으로 사고하는 방법**
- 20 국내 기업의 윤리경영 사례**
 - 금호고속
 - 굿모닝신한증권
- 28 국내 윤리경영 동향**
 - 기업 관련
 - 정부 관련

 이 자료는 국가청렴위원회 디지털기업윤리센터(<http://ethics.kicac.go.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I. 자발적 이니셔티브의 과제와 전망

☞ 국제적 인권단체인 Human Rights Watch의 기업 및 인권 담당 국장 Arvind Ganesan이 2006년 12월 12일 *BSR Weekly*誌에 기고한 “Is 2007 the End for Voluntary Standards?”를 번역, 정리한 것임

1. 자발적 이니셔티브의 개요*

*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박영우, “자발적 이니셔티브 : 효율적인 환경개선을 위한 새로운 전환”(환경 VIP Report 제34호, 현대환경연구원, 1999)’에서 발췌, 정리한 것임

□ 자발적 이니셔티브(voluntary initiative)란 일반적으로 기업, 산업, 정부 또는 제3자(third party)가 주체가 되어 실시하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말함

- 자발적 협약(voluntary agreements)
- 자발적 프로그램(voluntary programmes)
- 자발적 기준(voluntary standards)
- 기타 자발적 행동지침, 가이드라인, 원칙, 선언, 정책 등

□ 자발적 이니셔티브에 대한 용어들은 항상 일관성 있게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

- 네덜란드의 자발적 협약은 거의 모든 경우 법적 구속력을 갖는 계약 (legally binding contract)을 의미
- 미국의 자발적 협약은 일반적으로 구속력이 없는(non-binding) 자발적 프로그램을 의미

2. 자발적 이니셔티브의 현황

□ 2007년은 기업 및 인권에 관한 자발적 이니셔티브의 분수령이 되는 해임

- 자발적 이니셔티브의 진화 및 발전 정도에 따라 그것이 관행 개선의 주요한 수단이 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법규의 제정으로 대체될 것 인지가 결정될 것임

□ 현재 다수이해관계자로 구성된 4가지의 주요한 자발적 이니셔티브가 진행 중임

1) 공정노동협회(The Fair Labor Association : FLA)

- 발족 10년차로서, 신발 및 의류산업의 작업조건 감시와 개선을 위해 발족 되었으며, 작업현장에서의 인권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해오고 있음

2) 안전 및 인권에 관한 자발적 원칙(The Voluntary Principles on Security and Human Rights)

- 발족 6년차로서, 공공 및 민간의 안전요원과 거래를 하는 추출산업의 기업을 위해 마련된 기본적 기준으로 널리 인정되어 왔음
- 그러나 자발적 원칙은 이행에 필요한 최소 기준을 확립하고자 리더들이 보다 강력한 지배구조 제도를 채택하고 보고기준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3) 추출산업의 투명성 이니셔티브(The Extractive Industries Transparency Initiative : EITI)

- EITI는 2002년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에 의해 출범하였으며, 자연자원이 풍부한 국가의 부패와 부실행정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재원에 대한 공시와 감시에 주력하고 있음
- EITI는 시민들이 정부가 공공자금 사용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고, 인권남용을 야기하고 발전을 저해하는 ‘도둑정치 규칙’(kleptocratic rule)을 제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4) 인터넷 및 매스 미디어 회사, 비정부기구(NGOs), 학회, 사회적 책임투자 등은 표현의 자유 및 인터넷상의 이용자 사생활 등에 대한 기준 마련을 위해 현재 협의 중임

3. 자발적 이니셔티브의 도전 과제

- 앞에서 언급한 각각의 자발적 이니셔티브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의 보호를 진전시킬 수 있는 잠재능력이 있으나, 각각 나름대로의 한계가 있으며 상당한 논쟁의 여지를 안고 있음
 - 자발적 이니셔티브의 성패는 기업 또는 정부의 기준채택 의지에 전적으로 달려 있음
 - 많은 기업 및 정부는 이러한 기준채택 서명 등의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금융우대 등의 현행 인센티브도 다른 기업 및 정부의 참여를 촉구할 만큼 강력하지 않음
 - 이니셔티브에 서명한 경우라도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규칙들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음
- 자발적 원칙(The Voluntary Principles)은 주로 비정부기구들과 일부 기업들이 그러한 기준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지배 및 보고기준의 마련을 위해 노력중임
- 공정노동협회(FLA) 및 작업장 관련 이니셔티브들은 좀 다른 문제들을 안고 있음
 - 일부 분야에서는 자발적 행동강령 및 감사를 통해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장기간 계속 노력하였지만 작업조건이 예상한 속도만큼 개선되지 않기도 했는데, 이는 일부 하청업체들이 제도를 악용하여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입혔기 때문임
 - 예컨대, 중국의 많은 하청업체들은 작업장 기준이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처럼 꾸미는 등 감사를 왜곡하거나 교묘히 회피해 왔음
- 추출산업 투명성 이니셔티브(EITI)는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각국 정부의 동참을 촉구할 필요가 있지만, 각국 정부가 건전한 지배구조 촉진에 노력하고 있는 시민사회를 어려움에 빠뜨리거나 침묵하게 해서도 안 됨

○ 예컨대 콩고의 선도적인 반부패 운동가이면서 제1기 EITI 이사회의 이사였던 Christian Mounzeo는 2006년 11월에 자기 나라에서 체포되었는데,

- 국제 인권단체인 '인권감시'(Human Rights Watch)는 석유 판매수입을 잘못 관리한 정부에 대한 그의 대담한 비판 때문에 그의 체포 및 기소는 그를 괴롭히기 위한 핑계거리일 뿐이라고 믿고 있음

○ EITI가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EITI 관련 회의 참석을 위해 해외로 간 한 이사가 그 사건에 연루되었으며, 그를 체포한 정부가 그 이니셔티브의 회원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임

□ 인터넷 이니셔티브(The Internet initiative)는 회사들의 이행상황에 대한 강력한 보고기준과 신뢰할만한 기준 준수 메카니즘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중국에서는 인터넷 산업이 안고 있던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자발적 이니셔티브 자체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확실하지 않게 되었음

- 중국 정부당국들이 회사들에게 검색자료 및 블로그를 검열하도록 압박하고 인터넷 활동가들을 구속하는 데 이용된 사용자 정보를 정부당국에 넘기도록 강제하였음

○ 일부 비정부기구들은 이 분야에서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완적 노력으로서 규정과 자발적 기준을 점검하고 있음

4. 2007년 전망

□ 자발적 이니셔티브의 진전이 2007년에 주춤하게 되면 정부, 산업 및 비정부기구들 간의 관계는 소원해질 수 있음

○ 그렇게 되는 경우 비정부기구들은 다수이해관계자에 의한 자발적 이니셔티브를 포기할 수도 있으며, 독자적인 규제조치를 강구할지도 모름

- 공적 이해관계자들은 기업들이 현 상태에 만족하여 중요한 기준의 도입을 포기하려는 것으로 믿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것이 기업과 일부 정부에 대하여 추가적인 압력이 될 수도 있음
 - ‘피의 다이아몬드’(blood diamonds)와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다이아몬드 국제인증기구인 ‘킴벌리 프로세스’(Kimberly Process)와 같은 준규제적 기구도 오명을 씻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어 보다 많은 규칙이 요구될 수 있음

- UN의 규범들로서, ‘UN 인권 향상 및 보호 소위원회’(UN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가 2003년에 채택한 기업의 책임 기준 초안은 인권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폭넓게 인식하게 하는 유망한 조치였음
 - 일부 정부 및 기업에서는 그 규범들이 위협적이어서 UN이 아닌 기구들이 정한 규범들의 영향력을 제한하게 될 것으로 봤음
 - UN 사무총장의 기업 및 인권 특별대표인 Dr. John Ruggie에 대한 심한 비판으로 인하여 그 규범들은 더욱 훼손되었음
 - 역설적으로, 그 규범들을 폄하하려는 노력은 2007년부터 시작되는 법적 규제 방식 도입을 위한 압력을 가중시키는데 일조할 수도 있는데, 이는 그 공백을 포괄적인 기준으로 채워야 할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기 때문임

- 규제 조치 개시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움직임으로서는 미국 국회에서 민주당이 공화당에게 승리한 것임
 - 지난 10여 년간 미국 행정부(executive branch)가 일부 자발적 이니셔티브를 지원하여 왔으나 국회가 이를 규제하려고 한 적이 거의 없었음
 - 청문 및 규제에 대한 성향이 민주당 주도의 입법부 하에서는 달라질지도 모름

II. 구조적 변동 -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투자자 신화

- ☞ 국제적인 투자연구 및 자문 회사인 *Innovest Strategic Value Advisors*社의 설립자 및 CEO인 Dr. Matthew J. Kiernan이 국제적인 비영리단체인 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 (BSR)의 『*Leading Perspective*』誌 2006년 가을호에 게재한 “Tectonic Shifts—The Slow Death of Investor Myths”를 번역, 정리한 것임

- 사회적 책임 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ing : SRI)가 전통적인 투자 방식보다 나은지에 대하여 계속되어 온 논쟁은 여러 가지 면에서 비생산적이고 도움이 되지 못해왔음
 - SRI는 그 특성상 가치 지향적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 가치가 가장 중요하고 합법적인 것이라고 할 보편적인 합의는 절대 있을 수 없음
 - SRI는 투자 상품마다 각각의 특색이 있는 완전히 동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SRI가 더 나은가?"라는 질문이나 "주식투자가 더 나은가?"라는 질문은 각자 나름대로의 유용성이 있음
 - 위의 두 가지 질문 모두에 대한 해답으로서, 투자성과는 기본적인 기업 조사, 지분 선택 및 포트폴리오 구성 등의 질과 투자 스타일 및 투자기간 등에 의해 확실히 좌우됨

- 그래서 SRI가 특정기간 동안 실제로 더 나은 성과를 나타내는지의 여부는 문제의 핵심에서 크게 벗어나 있음
 -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과제 이행에 관한 연구가 전반적인 기업 경영의 질을 명백히 나타냄으로써 중장기 재무성과 예측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
 - 복잡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CSR 과제에 대한 기업의 전망 능력은 기업의 ‘경영의 질’로 일컬어지고 있으나 대부분 소홀히 다루지고 있음

- 뉴욕에서부터 도쿄에 이르기까지의 주류 재무 분석가들로부터 확인할 수 있듯이 경영의 질은 기업의 궁극적인 경쟁력과 재무성과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소로 간주되고 있음

□ 그러나 이상하게도, 대부분의 재무 분석가들은 특정 분야에서 잘 경영되고 기업이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를 정확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요인 때문에 어느 회사가 잘 또는 잘못 경영되고 있는지도 확실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음

- 이와는 달리 최고의 SRI 및 특별 재무를 담당하는 분석가들은 주류 재무 분석가들을 수치스럽게 만들 만큼 분석의 정확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양자를 실제로 잘 설명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SRI 분석은 전통적인 재무 분석가들에 의해 모호하고 불확실한 생각-지적인 이중 기준-으로 간주되어 대부분 용도 폐기 되었음

□ 그러나 이젠 이런 상황이 천천히 바뀌기 시작하고 있음

(CSR 투자에 대한 인식적 장애물)

□ 변화는 기존의 사고의 틀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지만, CSR 투자 요소를 주류의 재무분석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저항이 확산되고 있는 근원에는 끈질기게 지속되어온 적어도 5가지의 오해가 존재함

< 5가지의 신화 : 잘못된 믿음 >

1) 지속가능성 요소들을 위험 조정 재무 수익률(risk-adjusted financial returns) 과 연계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며 심지어는 나쁜 영향을 미치기도 함

- 전통적인 투자 이론은, 기업들의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 (ESG) 과제 의 이행은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거나 심지어는 재무적 가치의 증가 없이 비용만 부담하게 되어 기업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저해한다는 견해를 오랫동안 견지해 왔음

- 그러나 CSR 요소들을 잘 관리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은 기업들은 이러한 견해에 대하여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음

2) 지속가능성 요소들을 투자전략으로 통합하는 것은 신의성실 의무(fiduciary duty)를 위반하는 것과 같음

- 두 번째의 신화는 첫 번째에서 생성된 것임
- 여건이 좋을 때에 투자 분석가가 기업의 CSR 이행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면 시간낭비만 하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지만, 여건이 나쁠 때에는 ESG 요소를 고객의 포트폴리오에 포함시켜 운용하게 되면 기업과 투자자들의 재무적 성과가 실질적으로 나빠질 수도 있음
- 다른 사람들의 돈을 관리, 증식 및 보관에 종사하는 수탁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서 이런 요소들이 총체적인 투자분석의 일부가 되지 못하느냐?’는 질문이 남게 됨

3) 지속 가능성 관련 투자이론을 뒷받침하는 이론적으로 신뢰할 만한 증거는 없음

- 이는 투자에 대한 5가지의 신화 중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잘못된 믿음에 해당함
- 이 신화가 노골적으로 잘못된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고 영향력 있는 투자 분석가들과 컨설턴트들이 그것을 앵무새처럼 되뇌고 있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음
- 문제는 증거의 부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의론자들이 그 증거를 가볍게 부정해버리거나, 더욱 빈번하게는 그러한 증거가 존재한다는 것을 모를 뿐만 아니라 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사실임

4) 지속가능성 및 기타 특별재무에 관한 분석들은 전통적인 투자분석보다 덜 엄격하고 더 자의적인 것이 불가피함

- 이 특별한 신화는 지식적으로 정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선진 기관투자자들—특히 미국의 기관투자자들—로 하여금 투자수익률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SRI 전략을 사실상 모색조차도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임

5) 모든 SRI/지속가능성 관련 연구 및 투자방식들은 본질적으로 동일함

- 이것은 아기를 목욕물과 함께 밖으로 내던지는 것(throwing the baby out with the bathwater - 쇠뿔 고치려다 소 죽이는 것 - 번역자주)과 비슷함
- 일부 SRI 분석과 투자 상품은 품질이 떨어지고 투자수익률이 저조하다는 것이 사실이나, 주류의 투자분석 및 상품도 일부는 품질이 저급하고 투자수익률이 저조한 것은 마찬가지임
- 어느 경우에도 최악의 실패를 상정하여 투자자들로 하여금 투자영역 전체(entire genre)를 포기하도록 해서는 안 됨

(전통적 투자 방식에 대한 법적 위기의 도래)

- 현재 훌륭한 CSR 이행이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보다 나은 재무적 성과를 창출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주목할 만한 증거가 이미 다양한 출처로부터 제시되고 있음
- 더 중요한 것은 기업들의 CSR 이행과 포지셔닝으로 위험과 수익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는 것임
- "CSR 프리미엄"(또는 위험)이 증가 일로에 있는 것이 강력한 세계적인 추세(powerful global megatrend)이며, 그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은 것들임

- 기업의 ESG 과제 이행과 기업의 경쟁력, 수익성 및 주가 상승 사이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증거들이 많아지고 있음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새로운 거래 및 투자 위험에 대한 공시의 강화를 위한 국제적, 지역적 및 국가적인 규제 요건이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음
 - 특히 새롭고 비전통적인 요인에 의해 위험 수준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신흥시장에 경쟁과 기관투자가 집중
 - 기업들의 ESG 과제 이행에 따른 위상과 재무성과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소비자 및 투자자의 인구통계학적 변화
 - 풍부한 자원, 신인도, 기업정보에 대한 접근성, 국제적인 의사소통 능력 등을 갖춘 국제적인 비정부기구들로부터의 압력 증가
 - 이러한 분야에서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등 법적 신의성실 의무의 범위가 실질적으로 확대
 - ESG 투자에 참여한 기업들의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신탁 자본주의"(fiduciary capitalism)가 출현되면서 주요 기관투자자들의 주주 행동주의를 위한 성향과 능력이 증대되고 있음
 - 기업 간부들이 CSR 요소와 관련된 경쟁위험, 재무위험 및 효익을 평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세계적 대세의 각 사례들은 스스로 CSR 프리미엄을 증가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것임
- 이러한 각 사례들이 모이면, 향후 10년 동안에 투자와 관련된 잘못된 믿음들을 극복하고 투자의 전망과 주류 이론 등을 변화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 대적할 수 없는 힘을 형성하게 될 것임

III. 윤리적으로 사고하는 방법

☞ 응용윤리학을 연구하고 있는 Santa Clara University의 Markkula Center에서 Manuel Velasquez, Dennis Moberg 등이 공동으로 저술한 “A Framework for Thinking Ethically”를 번역, 정리한 것임

1. 개요

- 본 논문은 윤리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을 습득하기 위한 입문서로 만들어진 것임
 - 우리 모두는 윤리적으로 행동할 때나 가장 좋을 때 우리 자신에 대한 더 나은 모습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
 - 또한 우리는 윤리적 공동체, 윤리적 경영, 윤리적 정부, 윤리적 사회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미지도 가지고 있음
- 윤리는 실제로 개인으로서 윤리적으로 행동하고, 윤리적인 조직 및 정부를 구성하고, 우리 사회 전체를 윤리적으로 만드는 것 등의 모든 차원에서 관련이 있음

2. 윤리의 정의

- 간단히 말하면 윤리는 친구, 부모, 어린이, 시민, 기업인, 교사, 전문가 등 인간이 각자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말해주는 행동 기준을 말함
- 윤리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윤리가 아닌 것을 확인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됨

가. 윤리는 감정(Feelings)과는 다른 것임

- 감정은 윤리적 선택을 위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함

- 일부 사람들은 잘 발달된 습관을 갖고 있어서 자신들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기분이 나쁘다고 느끼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기분이 좋다고 느끼고 있음
- 또한 옳은 일이지만 어려운 일인 경우에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감정을 느끼게 함

나. 윤리는 종교와 다름

-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임
- 대부분의 종교가 높은 윤리 기준을 옹호하지만,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형태의 문제들을 다루지는 않음

다. 윤리는 법규 준수와는 다름

- 좋은 법률제도는 많은 윤리적 기준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법률은 윤리적 범주로부터 이탈할 수도 있음
- 법률은 윤리적으로 부패할 수 있고, 일부 독재정권은 실제로 그러하였음
- 법률은 오직 권력을 위해서만 기능할 수도 있으며, 소수 집단의 이익만 대변하도록 제정될 수도 있음
- 법률은 일부 중요한 영역에서 기준을 설정하고, 집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새로운 문제들을 신속하게 다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라. 윤리는 문화적으로 인정된 규범의 준수와는 다름

- 일부 문화들은 매우 윤리적이지만, 다른 일부 문화들은 부패하거나 (남북전쟁 이전 미국이 노예제도를 등한시했던 것처럼) 특정한 윤리적 문제를 외면하기도 함

o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은 윤리 기준으로 봤을 때 만족스러운 것이 아님

마. 윤리는 과학과 다름

- o 사회과학 및 자연과학은 윤리적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해 줄 수 있으나, 과학 그 자체만으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해주지 못함
- o 과학은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 줄 수는 있는 데 반해, 윤리는 인간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제공함
- o 그리고 단지 어떤 일이 과학적으로 또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윤리적이라고 할 수는 없음

3. 윤리 기준의 파악이 어려운 이유

- 우리가 따라야 할 윤리 기준을 파악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두 가지의 문제가 있음
 - 1) 우리는 윤리 기준의 기반을 어디에다 둘 것인가?
 - 2) 그러한 기준들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구체적인 상황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 만약 윤리가 감정, 종교, 법규, 인정된 사회적 관행 또는 과학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다면,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는가?
- 많은 철학자들과 윤리학자들은 우리가 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들은 우리가 이용해야 할 윤리기준에 대한 다섯가지의 접근방식을 제시해 주고 있음

4. 윤리 기준에 대한 다섯가지의 접근방식

가. 공리주의적 접근법(The Utilitarian Approach)

- 일부 윤리학자들은 윤리적 행동이란 최대한의 선을 행하고, 최소한의 악을 행하는 것, 달리 표현하면 악에 비해 선을 극대화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강조함
 - 윤리적 기업의 행동이란 고객, 종업원, 주주, 지역사회, 환경 등 기업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선을 최대화하고, 악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윤리적 전쟁은 살상 및 파괴를 통해 모든 당사자에게 해를 끼치는 테러리즘을 끝내는 데 있어서 선이 행해지도록 함
- 공리주의적 접근법은 결과를 중시하고 있는데,
 - 그것은 선행을 증가시키면서 동시에 악행을 감소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음

나. 권리 접근법(The Rights Approach)

- 일부의 다른 철학자들과 윤리학자들은, 윤리적 행동이란 이해관계자들의 도덕적 권리를 최상으로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함
- 동 접근법은, 인간은 개인의 인간성이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에 기초한 존엄성(dignity)을 갖고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하고 있음
 - 그러한 존엄성에 기초하여 인간은 목적(ends)으로 대우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됨
 - 도덕적 권리로서는, 어떤 삶을 영위할 것인가에 대해 선택할 권리, 진실을 들을 권리, 상해를 당하지 않을 권리, 일정 수준의 사생활을 보장받을 권리 등이 폭넓게 논의되어 지고 있음

- 현재 일부 사람들은 인간이 아닌 존재들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함
 - 또한 권리는 의무, 특히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는 의무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해짐

다. 공정성 또는 정의 접근법(Fairness or Justice Approach)

- 아리스토텔레스와 다른 그리스 철학자들은 ‘모든 평등한 사람들은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사상을 제시하였음
- 오늘날 우리는 이 사상을 이용하여 ‘윤리적 행동이란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며, 만약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면, 납득할만한 기준에 근거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음
 - 우리는 사람들에게 업무의 난이도 또는 그들이 조직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며 그것은 정당하다고 말함
 -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급여 보다 수백배가 더 많은 CEO의 보수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음
 - 많은 사람들은 거대한 차이가 납득할만한 기준에 근거하고 있는지 또는 그것이 권력의 불균형의 결과이고 그래서 그것이 불공평한 것 인지의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라. 공동 선(善) 접근법(The Common Good Approach)

- 그리스 철학자들은 또한 공동체의 삶이 선(善) 그 자체이며 우리의 행동은 공동체 삶을 위해 기여해야 한다는 개념을 발전시켜왔음
- 동 접근법은 사회의 연동적인 관계(interlocking relationship)는 윤리적 합리성의 기초이며, 모든 다른 사람들(특히 약자)에 대한 존중과 연민은 그러한 합리성의 필수요건이라고 주장함

- 동 접근법은 또한 모든 사람들의 복지에 중요한 공통 조건에 주목하고 있는데, 그러한 공통 조건에는 법률제도, 효과적인 경찰 및 소방 부문, 보건 및 공교육제도와 심지어 공공오락 부문까지도 포함

마. 미덕 접근법(The Virtue Approach)

- 윤리에 대한 매우 고전적인 접근법은, 윤리적 행동이 우리의 인간성을 완성시키는 어떤 이상적 덕목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임
 - 이러한 덕목은 우리가 최고의 잠재적 특성에 따라, 그리고 진리와 미(美) 등의 가치를 위해 행동할 수 있게 해 주는 성향이자 습관임
 - 정직, 용기, 연민, 아량, 관용, 사랑, 충실, 도덕성, 공정성, 자제, 사리분별 등은 이러한 덕목의 예라고 할 수 있음
- 미덕 윤리학은 어떤 행동을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함
 - 만약 내가 이 일을 한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 이 행동이 내가 가장 잘한 모습인가?

5. 다섯가지 접근법의 통합

- 각각의 접근법들은 어떤 행동기준이 윤리적이라고 생각되는지를 결정하는데는 도움을 주지만, 아직도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있음
-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특정 접근법의 일부 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임
 - 인간의 권리와 시민의 권리를 동일시하는 것에 대하여 모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동 선(善)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이 다를 수가 있음

- 또한 선과 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의견이 다를 수 있음
- 두 번째 문제는, 서로 다른 접근법들이 “무엇이 윤리적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모두 똑같은 방식으로 답변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접근법들은 특정한 상황에서 무엇이 윤리적인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함
 - 그리고 드물긴 하지만 서로 다른 접근법들이 유사한 대답을 이끌어 내기도 함

6. 의사결정

- 윤리적으로 좋은 의사결정은 윤리적 이슈에 대해 잘 훈련된 감수성과, 의사결정의 윤리적 측면을 검토하고 특정 행동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사항들을 고려하기 위한 숙련된 방법을 필요로 함
- 윤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정기적으로 숙련만 되면, 그 방법은 매우 친숙해져서 구체적인 단계를 찾아보지 않아도 그 방법을 통해 자동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됨
- 우리가 직면하는 윤리적 선택이 더욱 새롭고 어려울수록 그 윤리적 딜레마에 대하여 사람들과의 토의와 대화가 더욱 중요하게 됨
 - 그러한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통찰력과 다른 시각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야만 윤리적으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음
- 다음에 제시하고 있는 윤리적 의사결정 체계는 윤리적인 딜레마를 검토하고, 윤리적 행동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유용함

7. 윤리적 의사결정 체계

가. 윤리적 이슈의 인식(Recognize an Ethical Issue)

- 1) 사적으로, 대인간 또는 사회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는가? 갈등, 상황 또는 결정이 다른 사람들 또는 공동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것은 아닌가?
- 2) 그 이슈가 법적 또는 제도적 관심사항을 벗어난 것은 아닌지? 그 이슈는 존엄성, 권리, 더 나은 공동체적 삶을 희구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나. 사실관계의 파악(Get the Facts)

- 3) 이 사건의 관련 사실들은 무엇인가? 어떠한 사실들이 알려지지 않았는가?
- 4) 어떤 개인 및 집단들이 결과에 대해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일부 사람들의 경우, 특별한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들에게 특별한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가?
- 5) 행동을 위한 선택은 무엇인가? 관련된 모든 사람들 및 집단들에게 자문을 받았는가? 만약 당신이 존중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선택 리스트를 보여준다면, 그 사람은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가?

다. 다양한 윤리적 관점에 의한 대안적 행동의 평가

(Evaluate Alternative Actions From Various Ethical Perspectives)

- 6) 어떤 선택이 최대한의 선과 최소한의 악을 발생시킬 것인가?

☞ 공리주의적 접근법 : 윤리적 행동은 해악에 비해 선이 극대화되도록 할 수 있는 행동을 말함

- 7) 비록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의 권리와 존엄성은 여전히 존중될 것인가?

☞ 권리 접근법 : 윤리적 행동은 관련이 있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가장 의 무적으로 존중하는 것을 말함

8) 어떤 선택이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정한가?

☞ 공정성 또는 정의 접근법 : 윤리적 행동은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고, 동등 하지는 않더라도 적절하고 공정하게 대하는 것을 말함

9) 가족, 공동체, 사회의 일원으로 우리가 공유하는 삶에 더욱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인가?

☞ 공동 선 접근법 : 윤리적 행동은 공동체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기여를 하는 것을 말함

10) 당신은 용기나 연민을 가진 사람처럼 행동하기를 원하는가?

☞ 미덕 접근법 : 윤리적 행동은 최고 수준의 인간의 관습과 가치를 구현시 키는 것을 말함

라. 의사결정 및 시험(Make a Decision and Test It)

11) 모든 관점들을 고려해 볼 때, 어떤 선택이 행동하기에 가장 올바르고, 최선인가?

12) 만약 당신이 이러한 선택을 한 이유를 누군가에게 말할 때, 그 사람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만약 텔레비전을 통해 당신의 결정을 설 명해야 한다면, 당신은 그렇게 하는 것이 편할 것인가?

마. 이행 및 향후 결정에 대한 심사숙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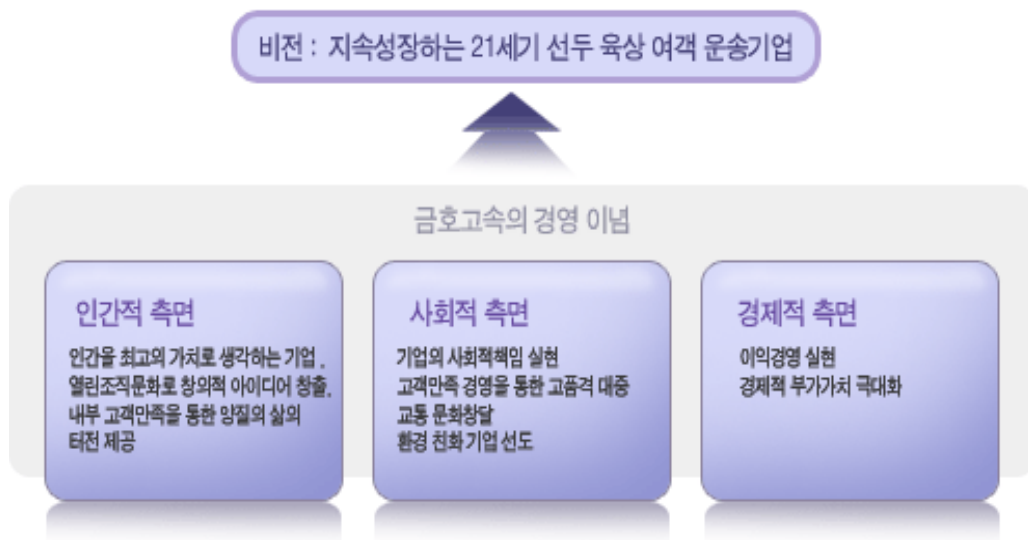
13) 당신의 결정을 이행하라. 그 이행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만약 당신이 반복해서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다른 방 식으로 할 것은 무엇인가?

IV. 국내 기업의 윤리경영 사례

1. 금호산업(주) 고속사업부 윤리경영 사례*

* 2007. 2. 21일 금호산업(주) 고속사업부가 국가청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요약정리한 것임

《경영이념》



- ◎ 금호고속은 인간존중의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종업원에게 보다 나은 일 자리를 제공하고, 고객 감동을 실천하며, 다양한 활동으로 사회에 공헌하여 회사, 종업원, 고객이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윤리경영 가치체계》

- ◎ 약속한 바를 꼭 지키며 건실하며 신뢰받는 "아름다운 기업"을 목표로 신뢰경영과 사회적 책임경영을 통한 윤리경영 실천을 다짐
 - 윤리경영 이념은 사회적 책임 외에 환경 책임 그리고 수익과 관련된 경제적 책임까지를 포함하는 지속가능경영과 동일한 의미로 정의됨

《윤리경영 실천프로그램 구축 운영》

□ 지탄받지 않는 경영

◎ 국가, 사회적 법규 및 규범 준수 : 탈세, 부정 없는 준법경영 및 투명한 회계 처리

- 내부회계관리 제도 시행 :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회계상 위험요소를 사전 통제하기 위한 내부 통제시스템 구축
- 공시관리 철저

◎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 강화

- 윤리경영 선포 및 윤리강령, 윤리규칙, 윤리행동지침 제정
- CEO의 강력한 윤리경영 의지 표명 및 CEO 직속의 전담 조직 신설
- 사내고발제도 활성화를 통한 고발, 신고문화의 정착을 위한 윤리위반 신고포상제 도입 운영
- 명절 선물 및 금품 안받기 캠페인 전개 및 임직원 윤리경영 의식 조사

◎ 윤리경영 평가시스템 구축 : 신뢰성 제고 및 공정성 확보

- 팀, 영업소 윤리지표 KPI(Key Performance Index) 평가 : 272개 항목
- 윤리경영지수 평가 : 실행인프라지수, 윤리지향지수, 사회지향지수, 준법지향지수 등 4개 지향지수, 25개 평가지표, 69개 세부평가항목으로 구성
-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응한 윤리경영지수 평가 모델 개발

◎ 고객과 약속지키기 운동 전개 : 고객 만족 경영

- CRM(고객관계관리) 강화 : 고객정보D/B 관리로 차별화된 서비스제공
- 고객불만처리 프로세스 개선 및 외부고객 만족도 조사 실시
- 고객 칭찬 및 고객 불만 사례집 발간

□ **협력회사 상생경영**

◎ **중소 협력회사 자금결제 기일 단축을 통한 협력회사 유동성 지원**

- 신속한 대금 지불 : 지급기일 10일 단축 및 인터넷 बैं킹 활용

◎ **협력회사 육성 : 협력회사 운용 효율성 향상**

- 협력회사 JIT(Just In Time, 필요한 때 필요한 부품만 확보하는 경영 방식) 시스템 구축 : 통합관리 및 부품별 전문성 구축
- 협력회사 상생프로그램 확대 운영 : 결제기간, 장기계약, 교육프로그램, 제안제도 운영 및 정서적 교류 확대

□ **장애인 등 소외계층 돕기**

◎ **장애인 고용 확대 및 장애인 돕기 활성화**

- 법정 장애인 고용 비율 준수 및 임직원가족 장애인 돕기

◎ **소외계층 돕기**

- 사회봉사활동 실천단 발족 : 「아름다운 만남」 봉사단
- 사회봉사활동 운영규정 및 사회공헌활동 포인트 제도 제정·운영

◎ **사회공헌활동 실천 확대**

- 근무시간 내 봉사활동 절차 수립 운영, 우수부서 포상제도 운영, 팀/부서 윤리지표 KPI 내 사회공헌활동 비중 확대, 사회공헌활동 포인트 제도 확대 적용 등

□ **문화예술 지원**

◎ **문화예술 분야 지원 강화**

-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지원
- 메세나활동에 적극적인 지원 및 봉사활동 참여

□ 아름다운 노사문화

◎ 합리와 원칙에 기초한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

- 61년 무분규 사업장 달성 및 노사문화 우수기업 3회 연속 지정
- 회사의 경영실적 및 정보 공유 : 경영설명회, 경영제안 제도 운영 등

◎ 정감있는 노사문화 창조

- 상시적 협의체 구성 및 사내고충처리 창구 운영
- Every Morning Meeting 실시 : 현장경영의 일환으로 매일 새벽 6시에 첫 차 출발시 CEO가 직접 직원들을 격려
- 노사공동 참여프로그램 운영 : 포상제도, 주재제도, 해외연수 등

□ 환경, 안전경영

◎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 환경 및 안전경영 전담부서 신설
- 환경경영 비전 및 전략 수립 : 환경시스템의 체계화 구축, 오염물질 방출 최소화, 에너지 자원 효율화
- 환경경영 추진 시스템 가동 : 환경부서 통합관리, 사업장 정기 환경 점검, 수질 및 폐기물 관리

◎ 안전경영시스템 구축

- 사업장 구조안전진단 및 화재안전진단 실시
- 디지털 타코그래프(Digital Tacho graph, 디지털 운행기록계) 도입
 - o 버스의 운전석에 장치되어 그 버스의 운행상황과 속도를 디지털로 기록하여 저장하는 매체로써 안전운행에 기여하고 승무사원 및 버스에 대한 관리가 용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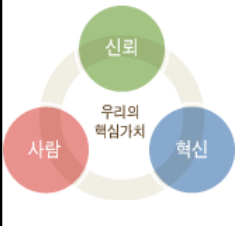
《윤리경영 주요 추진성과》

- 2005년 9월 : 「국가생산성대상 노사협력부문」 대통령 표창(한국생산성본부)
- 2006년 9월 :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 1위(한국능률협회)
- 2007년 2월 : 제3회 「투명경영대상」 우수상 수상(경제5단체)

2. 굿모닝신한증권 윤리경영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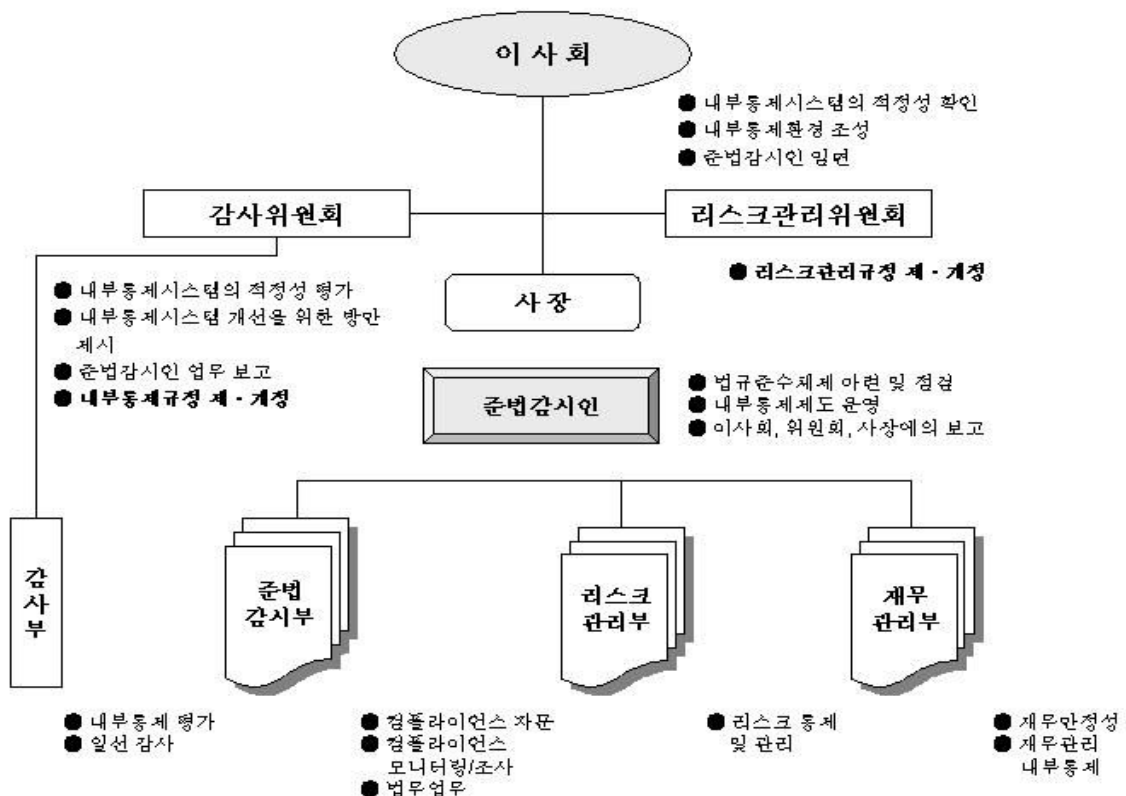
* 2007. 2. 21일 굿모닝신한증권이 국가청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요약정리한 것임

《기업 핵심 가치》

	신뢰	우리는 고객, 직원, 주주의 신뢰를 중시한다.
	사람	우리는 개인의 능력과 적성, 자아실현을 존중한다.
	혁신	우리는 창의와 열정, 도전으로 지속적인 혁신을 추구한다.

《윤리경영 실천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

□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윤리경영 체제 구축 및 운영

◎ 윤리경영 전담조직 설치 운영

◎ 윤리경영 관련 규정 제정 및 시행

- 임직원윤리강령, 재무관련 임직원윤리강령, 내부통제규정 등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내부통제규정 아래에 각 업무별 세부 지침 20개를 제정·시행

◎ 내부고발제도 운영

- 임직원들이 업무수행 중 발견하게 되는 회사의 각종 문제에 대해 손쉽게 제보할 수 있으며, 전달 방법의 제한 없이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준법감시부 방문, 유선, E-mail 등의 형태로 제보가 가능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 공정한 경쟁을 위해 내부통제규정 내에 세부 업무별 지침을 마련하여 직원들의 영업, 업무 수행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을 제시
- 내부통제규정과 지침을 토대로 당사의 상시감시조직인 준법감시부에서는 상시감시체제를 구축하여 공정거래 관련 사내 모니터링을 실시

□ 협력업체 상생경영

◎ 협력업체 상생협력 프로그램

- 금융기관이라는 회사의 특성을 활용하여 협력업체와의 상호발전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협력업체 직원 대상 금융 교육 지원, 재무관련 컨설팅(자금 조달 방안 등), 퇴직연금 설명회 등이 있음

□ 노사화합 경영

◎ 인재육성을 위한 제도 운영

- 직원들의 역량 강화 및 자아 실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사내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였으며, 학자보조금, 학원보조금 지원 제도 등을 신설·운영함으로써 임직원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원하는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종업원과 기업가치 및 비전공유 시스템

- 매년 말 경영설명회(업적평가대회)를 개최하여 임직원들이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다음 해의 경영 전략 및 목표에 대한 의식을 공유
- 사내에서 수시로 개최되는 경영진 및 부점장 회의의 내용은 각 부점단위 회의시간에 공유되고 있는데, 특히 반기별 임·부점장워크샵, 분기별 부점장 회의, 매주 개최되는 경영회의 등에서 논의된 회사의 주요 내용은 회사 게시판 및 전자문서 조회를 통해 직원들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

◎ 고충처리시스템 운영

- Eureka(사내 제안 제도) : 직원들이 알고 있는 다양한 정보나 회사에 대한 제안을 받고, 그 내용을 회사 영업활동에 활용하며, 우수한 제안에 대한 보상을 하는 제도 운영
- 고충처리 Hot Line 운영
 - 회사의 제도/정책에 대한 문제, 개인인사문제, 부서내부문제, 개인적 고충 등 직원들이 고민하는 고충 또는 불만에 대한 접수(고충 접수자가 사안에 따라 수신인을 사장, 인사담당임원, 인사부장 등으로 설정할 수 있음)를 받는 채널로, 접수 내용에 대해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며, 회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 고객만족 경영

◎ CS 모니터링 및 교육 실시

- 매월 직원을 대상으로 CS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 고객부터 법인, 외국인 등 다양한 형태의 고객을 샘플링하여 직원의 서비스 정도를 직접 측정할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으며, 매월 각 부점별로 집계되는 결과는 회사 게시판을 통해 공개되고, 우수 부점 및 직원의 경우 포상을 실시(분기·반기·연간)하며, 하위 부점에 대해서는 별도 CS 교육을 실시

◎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 운영

- 본 코너는 증권업계에서 유일하게 오픈형으로, 고객들이 일상적으로 느끼는 단순한 건의부터 정책에 대한 제안까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고객 의견과 회사의 답변을 자유롭게 조회할 수 있음

□ 사회공헌활동

◎ 新사랑(사회봉사단) 등 봉사동아리 운영

- 단장인 CEO와 약 80여명의 희망 직원으로 조직된 新사랑은 ‘소외받는 이웃과 함께하는 기업’이라는 목표 아래 결식아동돕기, 국토대장정, 재해 구호 활동, 소아암환자 돕기 등의 활동을 진행

《윤리경영 주요 추진성과》

- 2005년 온라인 트레이딩 서비스 AAA(최우수등급) 획득(스톡피아)
- 2006년 사회공헌대상 문화예술지원 대상(한국언론인포럼)
- 2007년 3월 : 제3회 「투명경영대상」 우수상 수상 (경제5단체)

V. 국내 윤리경영 동향

【 기업 관련 】

◎ 모두투어, '설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캠페인 실시(2.2)

- 모두투어는 전국의 모두투어 임직원과 거래처를 대상으로 '설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운동'을 실시하였으며, 관련업체와 거래처에 미리 협조 공문을 보내 명절 선물을 사전에 차단

◎ 한국소방검정공사, 투명경영을 위한 '반부패 윤리강령 실천 다짐대회' 개최(2.5)

-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투명경영 실현을 위한 「2007년도 반부패 윤리강령 실천 다짐대회」를 개최
 - o 동 대회에서는 "행동강령준수서약서"와 "부패척결을 위한 나의 다짐"에 서명하고,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다짐

◎ GS칼텍스, 설맞아 협력업체와 온정 나누기(2.7)

- GS칼텍스 설 명절을 맞아 3,800여명의 주유소 파트너 및 협력업체에 설 선물을 전달
 - o 이 행사는 주유소 파트너 및 협력업체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도 상호 윈-윈(Win-Win)하는 상생의 파트너십을 만들어가자는 취지
- 반면 GS칼텍스는 전국 협력업체에 편지를 보내 '저희 회사 임직원들에게 금액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어떠한 종류의 금품이나 선물도 제공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

◎ 경제5단체, '제3회 투명경영대상' 시상식 개최(2.7)

-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가 공동 주관하는 '제3회 투명경영대상' 수상기업에 신세계가 선정되었으며, 금호산업 고속사업부와 굿모닝신한증권은 공동으로 우수상을 수상

◎ 다음다이렉트, 클린제도 도입(2.9)

- 다음다이렉트는 윤리경영의 일환으로 클린제도를 도입할 예정
 - o 클린제이란 다음다이렉트가 발주하는 아웃소싱 업무, 소모품을 제외한 물품구매, 공사 등 모든 협력업체와의 업무 계약시 회사내 담당자와 관리자, 협력업체가 상호 클린 계약 이행을 서약하는 제도
- 클린제도 도입과 함께 홈페이지에 '부당거래 제보센터'를 오픈해 협력업체가 상시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

◎ 현대자동차, 투명경영을 위한 '이사회외 위원회' 신설 계획(2.18)

- 현대자동차가 3월에 개최될 주주총회에서 정관에 이사회 구성원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이사회외 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을 발표

◎ 파이낸셜타임즈, '윤리적 소비' 관련 보도(2.20)

- 파이낸셜타임즈(FT)는 공정거래와 환경친화적 경영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제대로 수행하는 기업이 과거에 비해 많이 줄고 있는 추세라며 소비자들은 CSR에 최선을 다하는 기업 제품을 구입하는 이른바 '윤리적 소비'가 새로운 화두로 등장했다고 보도
- 이 같은 결과는 FT와 영국 마케팅 조사기관 GfK NOP가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5개국에서 총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른 것으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가운데 절반가량이 기업윤리가 5년 전에 비해 악화됐다고 평가

- 그러나 응답자 중 3분의 1가량은 윤리경영을 적극 실천해 나가는 기업의 제품가격이 경쟁업체보다 5~10%가량 비싸더라도 구매할 의사를 내비쳐 윤리적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높은 관심도를 반영

◎ 한국철도공사, '공사업체 도우미센터제' 도입·시행(2.21)

- 한국철도공사 시설기술단은 2월 초부터 투명·윤리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시설공사 협력업체 도우미센터' 제도를 도입, 시행 중
 - 시설공사 도우미센터는 철도공사 시설기술단 내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으며, 건설공사를 맡게 되는 모든 협력업체들은 계약체결 시 도우미센터 이용방법, 담당자 실명 및 연락처 등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됨
 - 이에 따라 협력업체들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부조리나 부당지시가 있을 경우 전화나 e-mail을 통해 이를 센터에 신고할 수 있게 되고, 시공 과정에 생기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상담 받을 수 있음
- 철도공사는 이를 위해 시설계획, 선로관리, 토목시설, 건축시설팀 등 시설기술단 4개 팀에 도우미센터 운영을 맡을 청렴혁신 담당자를 지정하였으며, 기존에 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를 위해서는 도우미센터 안내카드를 제작, 3월중 배포할 계획

◎ 동부제강, 바로잡기 신문고 '오픈'(2.21)

- 동부제강은 최근 자사 홈페이지 윤리경영 사이버 감사실의 명칭을 '바로잡기 신문고'로 교체
 - 이는 기존의 딱딱하고 거리감 있는 이미지를 버리고 사용자들이 친숙하게 느끼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제보자의 편의를 위해 제보자 개인정보 입력사항을 간결화하였으며, 제보의 활성화를 위해 익명제보 시스템을 추가하였음
 - 또한 인증번호를 발급해 제보자가 제보처리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제주농협, '사회봉사 포인트제' 시행(2.24)

- 제주농협지역본부는 도내 모든 농협직원을 대상으로 '사회봉사 포인트제'를 시행키로 함
 - '사회봉사 포인트제'는 직원 개인별로 실천한 사회봉사활동을 점수로 매겨 가장 성적이 높은 직원 4명을 선발, '자랑스런 농협인 봉사상'을 시상함으로써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주요 평가부문은 아름다운 기부문화운동, 사랑의 장기기증, 장애아동 및 무의탁아동 보호시설과 요양원 방문봉사, 독거노인 지원활동 등임

【 정부 관련 】

◎ 산업자원부, 산업계와 정부간 '기후변화협약 대응 추진협의회' 개최(2.13)

- 동 회의는 최근 포스트교토체제 협상 본격화 및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변화협약대응을 위한 정부와 산업계간 협력채널인 '기후변화대응 추진협의회'를 발족하고 '기후변화협약 산업계 대응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됨
- 산업자원부와 산업계간 '기후변화협약대응 추진협력 합의서' 조인을 통해 업계와 정부간 공식협의 채널인 '기후변화대응 추진협의회'가 발족되었으며
 - 추진협의회 발족이후 이루어진 첫 회의에서는 산자부가 산업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수립 필요성을 제시하고, 산업계가 '기후변화협약 산업계 대응전략'을 발표하는 등 산업계의 기후변화협약 대응 전략이 집중 논의됨
- 정부와 업계는 앞으로 추진협의회를 통해 국제 협상대책 수립, 산업계 기후변화협약 대응 지속가능 발전전략 수립, 기후변화 대응 산업계 지원정책 발굴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해나가기로 함

◎ 노동부, ‘노동행정종합컨설팅의 날’ 행사 개최(2.14)

- 노동부는 금년부터 매월 셋째주 수요일을 “노동행정종합컨설팅의 날”로 정하고, 그 첫 번째 행사를 2월 14일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전국 6개 대도시에서 동시에 개최
- o “노동행정종합컨설팅” 서비스는 노동부 지방관서에서 부서단위별로 개별적으로 제공되던 노동행정 서비스를 수요자인 기업의 요구에 맞추어 다수 부서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맞춤형 서비스임
- o 동 행사에서는 비정규직 보호제도, 고용허가제, 각종 정부지원사업 등 기업체 인사·노무담당자들의 관심이 높은 사항에 대해 설명회가 진행되었으며, 노동부, 중소기업청, 법률구조공단, 사회보험 전문가, 지역 은행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인사·노무관련 사항, 기타 궁금증에 대해 무료 상담을 실시하였음

◎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화학물질 불법수입에 대한 대처 계획 발표(2.14)

- 한강유역환경청은 2007년 중 화학물질 수입절차 미이행업체를 대상으로 화학물질 확인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세관에서 수입면장 발급시 확인제도에 대한 안내문 배포 등 적법한 수입절차 유도로 유해화학물질 유통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
- o 특히 민원인의 불편해소를 위해 모든 민원업무가 전자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의 전자민원시스템을 보완·개선하고, 환경청-협회간 실시간 각종 정보자료를 교환할 수 있는 온라인시스템 구축으로 수입업체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
- 아울러 한강유역환경청은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수입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단속을 통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처분 등 강력한 법 집행을 펼칠 계획

◎ 국가청렴위원회, 「기업 윤리경영 모델」 설명회 개최(2.15)

- 국가청렴위원회는 체계적인 기업의 윤리경영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그 일환으로서 경제5단체 및 기업의 윤리경영 담당 임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최근 개발한 「기업 윤리경영 모델」의 설명회를 개최
- 국가청렴위원회가 산업정책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개발한 「기업 윤리경영 모델」은 국내 기업들이 윤리경영의 국제적 표준화, 규범화 추세에 부응하여 국제적 정합성이 있는 자율적 윤리경영 체제를 조기에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실무지침 또는 편람형태의 모델임
 - 특히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반부패, 지배구조, 회계투명성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UN, OECD 등 국제기구들이 발표한 윤리경영 관련 원칙, 지침, 협약 등의 제 기준과 국내외 윤리경영 선도기업들의 다양한 제도 및 모범사례를 반영하고 있음
- 국가청렴위원회는 이번 설명회 외에도 책자 배포, e-mail 발송, ‘디지털 기업윤리센터’ 홈페이지에 게시 등을 통해 모델이 조기에 보급, 확산되도록 할 예정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2.23)

- 기술표준원은 최근 사이버쇼핑몰 이용 급증으로 인한 소비자 상담건수 및 불법제품 판매신고 증가에 따라 사이버쇼핑몰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을 밝히고, 동 계획의 일환으로 사이버쇼핑몰 사업자단체와 안전관리 업무협력을 강화하여 불법제품의 유통을 감시기로 함
- 기술표준원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이버쇼핑몰에서 불법제품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자율적 안전관리시스템의 기반을 마련

- 동 제도는 기술표준원이 자율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사업자단체인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각 통신판매업자의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사업자단체가 통신판매업자의 불법제품 판매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법제품에 대해 판매중지를 권고하는 시스템
- ‘자율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준수’를 선언하는 판매업자는 ‘제품안전자율이행(VAS : Voluntary Arrangement on Safety) 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자율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선언’은 통신판매업자가 불법제품을 판매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고 제품안전정보를 인터넷에 게재하는 것을 말함
- 기술표준원은 정기적으로 VAS 마크 사용 판매업자들을 평가, 안전관리 우수자 포상 등 인센티브도 부여할 방침이며, 소비자와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가칭 ‘사이버몰 안전관리 전문가 협의체’도 구성, 운영할 계획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SR)에 관한 최근 국제표준화기구(ISO) 회의결과 보고회 개최(2.23)**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국제표준화기구(ISO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서 21세기의 새로운 국제표준(ISO 26000)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책임의 국제표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된 제4차 SR 총회 결과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
-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 제정을 위한 ISO 총회는 2005년 3월에 시작되어 이번 시드니 총회까지 모두 네 차례 개최됨
- 이번 총회에는 54개 ISO 회원국과 28개 국제기구에서 산업계, 정부, 노동계, 소비자, NGO 및 기타(SSRO)*를 대표하는 275명의 전문가가 참석하여 ISO 26000의 7개 핵심 이슈**(core issue)에 대해 합의

* 환경, 인권, 노동관행, 조직의 지배구조, 공정한 운영관행, 소비자 이슈, 지역사회 참여/사회개발

** SSRO : service, support, research and others

- ISO는 2007년 11월에 제5차 총회, 2008년 5월에 제6차 총회를 개최하여 국제표준(ISO 26000)을 2009년 11월에 발간할 예정

- 그동안 우리나라는 ISO 26000은 ‘인증’이 아닌 ‘지침’(guidance) 성격의 표준이라는 분석 때문에 일본과 달리 기업을 비롯한 사회의 관심이 저조하였으나, 일단 제정되면 각 국가나 기업의 투명성, 윤리성 등 사회적 책임에 대한 검증기준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